



12면

무주당산리 산성·봉화유적 발굴조사 완료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음 5월 2일) 제302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선거운동 막바지... 민주·국힘, 대도민 지지 호소

김성주 민주당위원장
“검찰 공화국 지지
진정한 지역발전 이끌
유능한 일꾼 선출
본투표 참여해달라”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사선 오른쪽)과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등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운천 국힘 도당위원장
“민주 일당독주 막아야
전북발전 도모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 가능한
국힘 소속 정치인 필요”

▲ 김성주 “무소속, 대안이 될 수 없
어... 지역 발전 이루려면 정당 매개
로 한 중앙정부, 국회로 이어지는 예
산·입법 관문 넘어야”

“검찰 공화국 지지·전북 혁신 주
도, 더불어민주당만 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
장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30
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이런 지선의 의미는 윤석
열 정부·여당의 검찰 공화국 추진
을 막아내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이
끌어갈 유능한 일꾼을 선출하는 것”
이라며 민주당의 후보 지지를 호소
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사무국장과 운영지원과장으로
기용했던 검찰 공무원을 청와대
인사기획관과 총무비서관으로 선임
했고, 리틀 윤석열로 불리는 한동
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제는 최측근 장
관 아래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인사
정보 관리단’을 설치하겠다고 나섰
다”며 “이는 대통령·법무부·검찰
의 ‘검사라인’으로 공식사회를 장악
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자 인사·
사정·정보를 독점하겠다는 반헌법
적 구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폭주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무소속이 대안이 될 수는 없
다.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려면
정당을 매개로 한 중앙정부와 국회
로 이어지는 예산과 입법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167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 다수당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산 전쟁에서 승리해 14개 시·군
을 바꿔낼 것이다. 원팀으로 뛰는 더
불어민주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라
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두 명 이상
을 뽑는 기초회의의 경우 여성과 청
년 후보자의 비중이 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역량 있는 후
보자가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며
“시·군 의회의 변화를 주도할 민주
당 후보들이 동반 당선될 수 있도록
1·가, 나, 다 후보를 고르게 지지해
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덧붙여 “사전투표
에서 전북은 투표율 24.4%로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며 “투표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직 투표하지 않은 116만
도민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북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민주당
의 후보를 선택해주시길”을 호소했
다.

▲ 정운천 “쌍발통 정치야말로 전
북의 미래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
법”
“민주당 일당독주 30여년 동안 침
체됐던 전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

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
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은 30일 대도민 호소문을
통해 “전북도의 민주주의가 병들어
가고 있다. 민주당의 일당독주와
전북 홀대로 접철된 30년의 과거에
서 우리는 알 수 있다”며 “전북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주당을 견
제하고, 효과적으로 중앙정부와 소
통할 수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이 전북도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북도는
민주당 30년 독주속에서 이렇다 할

유의미한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전북에 공
수표를 남발하면서 당선이 되고 나
면 언제 그랬냐는 듯 뒤돌아섰다”
라며 “국민의힘은 돌아서지 않겠
다. 저 정운천을 비롯해 조배숙 전
북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정
치인들이 집권 여당과 전북도의 통
로로서 도민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전북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
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끝으로 “매너리즘
에 빠진 민주당만으로는 전북의 발
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견제하는 쌍발통 정치야말로
전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이다”라며 “전북 발전에 대한
염원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이
번 지방선거에서 조배숙 후보를 비
롯한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전북
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3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8차 대도약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
의회) 정기회의를 개최, 생태문명시대
의 대표 혁신공간인 ‘생태문명원 조성
(안)’을 발표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해 공동위원장인 조봉업 행정부지사
와 유대근 우석대 교수, 민간 위촉위
원 관련 실국장 등 40여명이 함께 했
다. (관련사진 3면)
회의에서는 4년간의 정책협의회의
역할과 운영 성과 보고, 전북연구원의
생태문명 혁신공간 조성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정책협의회 위원들의 향후
정책 진화에 대한 자료와 다양한 의견
이 오갔다.
먼저, 전북연구원은 사람과 자연, 미
래를 담은 생태문명원 조성 사업의

4년 걸쳐 조성될 ‘생태문명원’, 혁신성장 거점공간

전북도 대도약정책협의회, 4년 발전전략 논의
송하진 도지사, “생태문명의 대표사업 진화되길”

핵심시설과 기본 구상(안)을 발표하
고, 새로운 내발적 혁신성장의 거점공
간임을 강조했다.
‘생태문명원’은 생태문명 가치를 실
현하는 혁신 공간으로 도 유유지 20만
㎡부지에 4년에 걸쳐 2,000여억원을
투입해 6개 핵심시설을 조성한다는 계
획이다.
이 사업은 다양한 컨셉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입체적인 복합공간 사업으로 6대

핵심시설은 기획단계부터 ‘생태화 가
치를 담고 출발한다고 전했다.
생태문명 테마전시관은 생태문명으
로 전환방향과 내용을 구현해 내는 다
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
간이다.
생태기술혁신센터는 상상력에 기반
해 다양한 사회적 실험과 혁신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생태문명 기술을
축적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다.
생태마을은 주거방식의 전환을 통해

생활세계에서 실천이 되는 자연 친화
적 가치를 적정 기술로 주거와 생활에
적용한 공간이다.
생태정원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대표하는 생태 자연자원 등이 보존되
어 공존하는 서식지 방식의 정원이다.
생태문명연구교육센터는 생태문명
사회가치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작
업을 위한 실천적 연구와 인력을 양성하
는 기구이자 공간이다.
생태문명다목적동은 이용자, 활동자,
전문가 등의 다목적 교류공간으로 대
한민국 생태문명 1번지를 위한 ‘생태
문명 학습대회’ 거점이다.
공동위원장인 유대근 교수는 “전북

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대변
화에 맞춰 꼭 필요한 정책발굴이 필요하
다”며 생태문명원의 필요성에 공감
을 표시했다.
김택천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은 “문명사적 대전환기에서 생태문명
혁신거점은 꼭 필요하다”며 “미래가치
를 담은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속히 추
진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사업규모와 예
산이 크고 융복합 사업인 경우, 단일사
업으로 예산변영이 어려울 것을 예
상하며, 6대 핵심시설을 기능적으로 나
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의견
이 제시됐다.

더불어 도는 최근 5월 ‘탄소중립법’
시행으로 본격화 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향후
탄소중립지원센터 조성 시 핵심사업
으로 연계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
사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산업문명 시
대 개발위주의 발전방식은 많은 한계
와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인간
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문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대적 과제로
조명되고, 생태문명원이 대표사업으로
진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6월 1일자 신문 습니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